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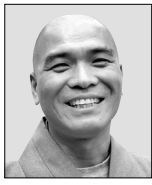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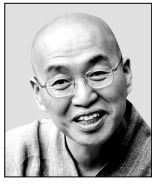
탄허대종사 101주년 탄신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퇴우 정법 스님은 2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탄허대종사 101주년 탄신다례제를 개최한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불교인원위원회 위원장 진관 스님은 2월 11일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획단 창립총회를 열고 상임단장으로 기획단을 창단했다.



실천불교승가회 정기총회 실천불교승가회 대표 퇴후 스님은 2월 20일 서울 조계사 안심당에서 2014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정도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2월 28일까지 정도불교대학 2014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02)587-8990



동두천불교연합회 회장 취임 동두천 자재암 주지 혜만 스님은 2월 12일 유림호텔에서 동두천불교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031)865-4045



현대불교연구원장 취임 부산 법어사 재무국장 무관 스님은 2월 7일 현대불교연구원 제3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불교학연구회 겨울워크숍 조은수 불교학연구회 회장은 2월 15~16일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현대한국수행의 현장과 활용'을 주제로 겨울 워크숍을 연다.

<인사> 동국대 서울캠퍼스 2월 3일자 발령

△전략기획본부 경영평가실장 김갑순 △다르마칼리지 학장 겸 창의혁신소통센터장 황종연 △다르마칼리지 교양외국어센터장 전승우 △학사지원본부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김대영 △산학협력단 창업지원센터장 이광근 △미래인재개발원 역량개발센터장장환영 △학부생심리상담센터장 조윤오 △청년기업가센터장 전병훈

<인사> 문화재청 2월 4일자 발령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전기선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장 서기관 김계식 △문화재정책국 안전기준과장 서기관 우경준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서기관 도중철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문화재연구실장 학예연구관 이난영

‘종책 길라잡이’ 자임... “연구 현실화 주력”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책임명된 법안 스님



“조계종의 종책연구기관으로서 불교사회연구소가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종책과 사회 의제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구 사업이외에도 연구 성과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출판, 교육 사업들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대 소장인 법안 스님(사진, 중앙종회 부의장)은 2월 5일 임명식 수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연구소의 역할과 기조는 확고했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종책에 대한 연구 의제를 양산하고 대사회적 문제를 불교적 시각에서 해석해 실천적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향후 불교가 사회 여론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 2011년 조계종 종책과 주요 의제를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됐다. 법안 스님은 초대 소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연구 사업을 진행했다. 실제 종단 사상 처음으로 종교·사회 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매년 실시해 불

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살폈으며, 다문화·양극화 등 사회 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 마련부터 호국불교·직할교구 분구 등 종단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행됐다. 지난해에도 종단채신위원회와 함께 교구중심제와 법계직무제도에 대한 연구와 제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법안 스님은 “교구본사는 단위 사찰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역불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역할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교구중심제의 취지”라면서 “법계직무제도는 법계에 맞는 의무 이행과 신분보장,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연구소가 다양한 연구 성과를 내놓는 데 주력을 했다면 앞으로는 불교 내 의식들이 고양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는 작업을 시행하겠다는 게 법안 스님의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양극화 문제다. 법안 스님은 “불교 내부에도 교구부터 지역 사찰, 스님 간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면서 “더 이상 간과하고 있을 수준이 아니다. 종단 차원에서 이를 연구해서 해소 방안을 어떻게 종책으로 만들 것인지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미약한 불자들의 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불교사회윤리교과재와 재가자들의 수행지침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스님은 “인권, 환경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을 담긴 사회윤리교과재를 준비 중”이라며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들의 의식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은 참선 수행을 표방하는 종단이지만 지난해 설문조사를 보면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재가자들이 올바른 수행을 유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2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법안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임기는 3년이다. 신종일 기자

정우 스님, 국방부 감사패 수상

햇떡 22만개 등 위문품 지원과 사기 진작 공로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이 1월 29일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킨 공로로 국방부장관 감사패를 받았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정우 스님이 필리핀 태풍피해 특별 성금기탁을 비롯해 전방부대 경계작전에 도움을 주는 물품 기증 등을 통해 국군장병 사기진작과 신앙 전례화에 기여한 공을 높이 사 국군 전 장병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우 스님은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지난해 11월 1000만원을 국방부에 전달한데 이어 전국 군법당 모연을 통해 모금한 3000여 만원도 전달할 계획이다.

또 군장병 위문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1차 위문품으로 햇떡 22만개를 격오지 부대 27곳의 군장병에게 전달했다. 또 1월 27일과 28일 30사단 신병교육대와 26사단 신병교육대를 찾아 장병 2000여 명에게 자장면과 과일 점심공양을 보시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9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 선정

이상국 시인·소설가 이경자 씨 등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제19회 현대불교문학상에 이상국 시인과 소설가 이경자 씨가 선정됐다. 또한 시조 부문에는 이정환 시조시인, 평론부문에는 유성호 문학평론가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사흘 민박’ 등으로 시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이상국 시인은 빼어난 기교로 생각할 여지를 주는 여백이 많은 작품을 써 온 점을 인정받았다. 장편 ‘세 번째 집’으로 소설부문 수상자에 오른 이경자 소설가는 탐복 여성을 소재로 한반도 현실을 날카롭게 파헤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학평론가 유성호는 전통적 서정시 개념을 극복하고 보다 유연한 확장을 위한 이론적 모색을 지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조시인 이정환은 중앙시조대상·이후호시조문학상·가람시조문학상 등의 수상으로 그 저력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4월 19일 오후 3시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씩을 시상한다.

정혜숙 기자

불교 콘텐츠 한자리에 모았다

WTR-선원사 전자 불경 ‘연인’ 출시



WTR 김연식 대표는 강화도 선원사 주지 연승 스님(사진 오른쪽)과 손잡고 연인(蓮人)을 개발 2월 6일 마포구 불교방송 지하 1층에서 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불경 대전집, 불교성전, 찬불가 등을 PMP에 담은 전자불경이 출시됐다. WTR 김연식 대표와 강화도 선원사 주지 연승 스님이 손잡고 전자불경 연인(蓮人)을 개발 2월 6일 마포구 불교방송 지하 1층에서 제품 설명회를 가졌다.

WTR 김연식 대표는 무역을 하면서 연은 아이디어로 이번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업무 때문에 자주 미국 출장을 가는데 재미교포들에게 불경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았다. 하지만 불교 콘텐츠라는 것이 워낙 분량이 방대해 전달의 어려움이 많았다. 이들을 전자 콘텐츠로 만들어보자고 마음 먹고 강화도 선원사 연승 스님의 조언을 구해 전자불경 연인을 공동개발하기에 됐다”고 제품 개발 동기를 밝혔다.

여기에는 불경 대전집, 불교성전, 연승 스님의 저서 <좋은 연 이야기>, 찬불가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록했다. 정전식 터치 패널을 장착 경전구절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글자크기를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스마트폰 어플로

실용경전 50편 등 PMP에 담아 휴대성 검색 기능 높여



도 불경을 만날 수 있지만 어르신들에게는 기기의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전자불경 연인은 방대한 양의 불교 콘텐츠를 한 자리에 담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 글자 크기 조절도 가능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찰이나 개인 성향에 따라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WTR은 △불교 전자책 서비스 개발 △불교 문화 콘텐츠 제작 △불교문화 관련 온라인 서비스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bwjns@hyunbul.com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2014년 2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